

다시 열린 카드사 채용문... 'IT·데이터' 인재 수급 주력

비대면 서비스로 IT 인재 필요성 ↑
작년 하반기 채용 9월보다 늦춰져
'데이터 분석' 역량 필수 명시하기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카드업계에 하반기 채용을 주저하던 카드사가 채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정보기술(IT)·데이터 인력 수급에 공을 들이고 있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사는 오는 8일까지 하반기 공개채용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채용인원은 총 20명으로 일반 직무와 정보기술(IT) 직무에서 각 10명씩 선발한다.

카드사들은 일반적으로 9월부터 하반기 채용 일정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카드사	정기공채 일정
KB국민카드	10월 19일까지 서류접수
신한카드	4분기 중 진행 예정
우리카드	신입 공채 서류전형 마감 전형 진행 중
삼성카드	여름인턴 진행(채용전환형)
현대카드	채용전환형 인턴(7월, 10월)
BC카드	

자료/각사

코로나19를 비롯한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채용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신한카드 역시 지난해 9월 중 하반기 일정을 시작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아직까지 채용일정과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다. 다만 늦어도 4분기 중 정보통신기술(ICT), 마케팅 등과 같이 직무의 대분류 수준으로 채용하는 정기공

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4분기 중 정기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채용 방향, 전형구성, 일정 등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드업계가 코로나19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일정이 다소 밀렸음에도, 정기 공개채용에 나서는 이유

는 IT 사업 부문 인력 강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채용 비중이 높았던 일반직무를 대체해 데이터를 포함한 IT 관련 인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디지털 인력 확충 배경으로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 전체적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가 부각되면서, 디지털 부문 인력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BC카드의 경우 지난 7월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리스크 모델링 등의 인력을 선발하면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필수역량으로 내세워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 서류접수를 마감한 또 다른 채용전환형 인턴에서도 사업 제휴, 상품 운영 직무였음에도 우대사

항에 IT관련 역량 보유 능력을 명시했다.

BC카드 관계자는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가 중요해 지다 보니 채용 과정에서 IT능력을 우대하는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해당직 무로 입사를 하더라도 신입사원의 경우 순환근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직무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는 위축된 채용 시장이 오히려 좋은 인재를 데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채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일수록 오히려 유능한 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카드사들의 하반기 채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oul.co.kr

올 4분기 中企·가계대출 문턱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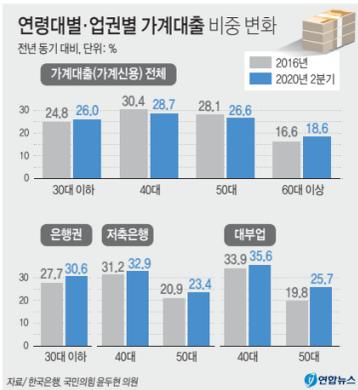
차주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등
대기업 대출태도 지수 변동없어
차주별 신용위험, 여전히 양의 값

4분기 국내 은행들이 가계대출 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국내 은행들의 대출행태지수는 3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신용 대출에 대해 간간해졌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14~25일 금융기관 201곳(국내은행 17곳, 상호저축은행 16곳, 신용카드회사 8곳, 생명보험회사 10곳, 상호금융조합 150곳)의 여신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대출태도·신용위험·대출수요 각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 완화", "신용·대출 수요 증가"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대출태도 강화", "신용·대출수요 감소" 응답 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음(-)으로



나타나면 반대다.

4분기 대출태도 지수를 차주별로 3분기와 비교하면 중소기업은 12에서 -3으로, 가계일반은 9에서 -9로 바뀌었다.

한은은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가계 일반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는 -3에서 -3으로 변동이 없었고, 가계주택

은 -18에서 -6으로 바뀌었다.

한은은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강화되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연장·재취급 조건 등은 다소 완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바라보는 차주별 신용위험은 여전히 양(+)의 값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은 기업 부문에서는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지속, 실물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가능성 등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크게 봤고, 가계의 경우도 가계소득 감소 등에 따라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비(非)은행금융기관 역시 대출에 간간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태도지수는 신용카드회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악화됐으며, 신용위험 역시 모든 업권에서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은행, 보이스피싱 예방 맞춤형 종합대책

금융사기예방진단표 업그레이드

하나은행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소비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점과 비대면, 고객분석 등 각 분야별 맞춤형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영업점을 중심으로 기존의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업그레이드하여 도입한다. 고액 현금인출, 이체 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던 문진 항목을 ▲카카오톡 피싱 ▲대출빙자 ▲현금인출유도 ▲구매대행 등 다양한 유형별로 세분화 후, 사례별 항목을 통해 정확한 문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새로운 금융사기 패턴 출현 시, 문진 항목에 신속히 추가 반영되도록 하고, 고령자는 별도의 보이스피싱 예방 알림을 발송한다.

비대면 대책으로는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도입하고 인증절차를 강화한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 텔레뱅킹 문



진제도를 시행하고 비대면 인증 시 보이스피싱 위험이 감지된 경우에는 화상 인증 등 맞춤형 추가 인증을 실시한다.

특히 휴대폰 개통과 악성앱 설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맞춤형 휴대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마지막으로 고객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발송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출사기, 검찰사칭 등 기존 피해 사례들을 분석하여 향후 피해 예상 고객별로 맞춤형 알림을 발송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협, 창립 60주년 기념 '플러스 정기적금'

신협중앙회가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최고 연 6.0% 이율을 제공하는 '플러스 정기적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플러스 정기적금은 현대카드 신규가입 및 6개월 이상 무실적 고객 대상 3만 원 이상 한도 특별판매 상품으로 최소 월 10만 원에서 최대 월 3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만기는 1년이다.

플러스 정기적금의 상품이율은 전 신협 공통 기본 연 1.6% 금리로, ▲신협 제휴 현대카드 신규 발급하고 월 평균 30만 원 이상 사용 시 추가 4.2%포인트, ▲신협 입출금 통장에 플러스 정기적금 자동이체 등록 시 추가 0.1%포인트, ▲신협 입출금 통장을 현대카드 결제계좌로 등록 시 추가 0.1%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또한 신협은 1인당 예·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저율과세(세율 1.4%)가 적용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금리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협관계자는 설명했다.

신협 '플러스 정기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품을 취급하는 신협을 방문하거나 신협 모바일 통합플랫폼 '온뱅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BNK경남은행

신탁하라 2020 이벤트

BNK경남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신탁하라 2020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탁하라 2020 이벤트는 특정금전신탁 일반 거치식에 5000만원 이상 또는 주가연계신탁(ELT)에 300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면 선착순 700명에게 해피포인트 1만원권 상품권을 증정한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약 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과 조건에 따라 운용한 뒤 운용 수익을 배당하는 금융상품이다. 신탁하라 2020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석 기자

BNK부산銀, 기보와 IP금융 활성화 협약

기술가치평가로 전액 지원

BNK부산은행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지방은행의 IP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IP 패스트 협약보증대출'을 실시하고 기술가치평가료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인공지능 기반 특허평가시스템으로 신속하게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해 IP 보증을 시행하고, 보증수수료도 0.30%포인트 이상 우대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특허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특허권을 사업화하고 기술보증금으로부터 IP 보증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



부산은행 본점 전경.

/부산은행

권당 최대 3억원이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던 IP 금융이 지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양호한 기술을 보유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기술력 하나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